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3. 10. 27.(금) 06:00 ~ 2023. 10. 29.(일) 23:00
- 상담건수¹⁾: 1,205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진행자 호평(9명)

- 프로그램명 : 「최경영의 최강시사」
- 방송일시 : 2023. 10. 27.(금) 1R (07:20-08:57)

해당 방송의 애청자이다. 이날 방송 초반에 진행자 최경영 씨가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한다고 밝혔다. 사전에 암시도 없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. 그동안 청취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했고, 잘못된 부분에는 소신 발언도 아끼지 않았기에 너무 아쉽다. 그동안 잘 청취했다. 감사하다.

○ 보도 제언(11명)

- 프로그램명 : 「KBS 뉴스」
- 방송일시 : 1TV

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. 그래서인지 며칠째 해당 사건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. 경제와 안보 등 다른 주요 뉴스가 많은데, 이태원 참사로 인해 묻히는 것 같아 답답하다. 물론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, 추모를 강요하는 분위기도 불편하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7건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1)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1,205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²⁾	계
668	40	-	-	497	1,205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588	371	53	-	1	192	1,205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246	959	-	1,205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967	6	87	145	1,205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편 성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더 라이브」 - 결방 제언 <p>【보 도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KBS 뉴스」 - 보도 제언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다큐 인사이드」 - 방송 호평 ○ 「남북의 창」 - 방송 호평 <p>【연예·오락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골든 걸스」 - 방송 호평 <p>【라디오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최경영의 최강시사」 - 진행자 호평 ○ 「주진우 라이브」 - 방송 제언 ○ 「윤유선의 가정음악」 - 진행자 섭외 제언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6시 내고향」 - ‘대추가래떡’ 연락처 문의 64건 ○ 「2TV 생생정보」 - ‘아귀짬’ 연락처 문의 27건 ○ 「전국노래자랑」 - ‘예심 일정’ 문의 21건 ○ 「최경영의 최강시사」 - ‘진행자 호평’ 19건 ○ 「KBS 뉴스 9」 - ‘보도 불만’ 19건 <p>【기 술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난시청」 문의 3건 ○ 「수신기술」 문의 2건 외 1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30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18건 ○ 「전화교환」 문의 13건 ○ 「사업 및 행사」 문의 9건 ○ 「수신료」 문의 7건 외 10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145건

2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	세부내용
[편 성]	
결방 제언	<p>○ 「더 라이브」 (5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0. 26.(목) 2TV (22:50-23:50) - 우리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얻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.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채워주는 방송인데 이날 결방이 되어 무척 아쉬웠다.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보 도]	
보도 제언	<p>○ 「KBS 뉴스」 (1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TV -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. 그래서인지 며칠째 해당 사건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. 경제와 안보 등 다른 주요 뉴스가 많은데, 이태원 참사로 인해 묻히는 것 같아 답답하다. 물론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, 추모를 강요하는 분위기도 불편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시사 · 교양]	
방송 호평	<p>○ 「다큐 인사이드」 ‘이태원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0. 26.(목) 1TV (22:00-22:50) -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, 벌써 1년이 흘렀다. 이날 방송에서 생존자들이 1년 전 그날의 기억을 증언했는데, 시청 내내 눈물이 났다.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참사를 조명해주어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게 됐다. 감사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
의견	세부내용
방송 호평	<p>○ 「남북의 창」 ‘클로즈업 북한’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0. 28.(토) 1TV (07:50-08:30) - 남북관계를 짚어볼 수 있고, 북한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. 이날 ‘클로즈업 북한’ 코너에서는 오색 단풍으로 물든 북한의 가을 풍경과 함께 북한의 관광 산업 육성 전략을 다뤘다. 덕분에 금강산의 단풍 구경을 할 수 있어 눈이 즐거운 시간이었다. 감사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연예·오락]	
방송 호평	<p>○ 「골든 걸스」 [첫 회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0. 27.(금) 2TV (22:00-23:30) - 이날 첫 방송된 「골든 걸스」를 재미있게 시청했다. 국내 최정상의 네 명의 보컬리스트들이 프로듀서 박진영 씨의 프로듀싱과 함께 그룹으로 컴백하는 여정을 그린다고 하는데, 독특한 콘셉트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.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생겨 기쁘다. 앞으로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[라디오]	
진행자 호평	<p>○ 「최경영의 최강시사」 (9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0. 27.(금) 1R (07:20-08:57) - 해당 방송의 애청자이다. 이날 방송 초반에 진행자 최경영 씨가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한다고 밝혔다. 사전에 암시도 없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. 그동안 청취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했고, 잘못된 부분에는 소신 발언도 아끼지 않았기에 너무 아쉽다. 그동안 잘 청취했다. 감사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의견	세부내용
방송 제언	<p>○ 「주진우 라이브」 ‘이태원 참사 1주기 특집 인터뷰’(4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0. 27.(금) 1R (17:05-18:58) -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흘렀다. 이날 ‘이태원 참사 1주기 특집 인터뷰’가 진행되었는데, 이 사고에 대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. 할로윈을 즐기다 발생한 사고로 몇몇 인사를 사퇴시켜야 된다는 주장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.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진행자 섭외 제언	<p>○ 「윤유선의 가정음악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FM (월-금) (09:00-11:00) - 아침 시간에 편성된 프로그램인 만큼 청취자들에게 신선한 활력을 주었으면 한다. 그런데 진행자 윤유선 씨는 목소리나 말투에 힘이 없고 쳐지는 느낌이다.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자를 교체해 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